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의 파국적후과와 그 교훈

부교수 정 광 선

1. 서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신과 알락을 조장, 격화 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여러 나라에서 전쟁과 분쟁이 그칠 사이없이 일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있다.

아랍세계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아랍의 봄》으로 불리우는 《색갈혁명》이 일어났다.

아랍나라들에서 일어난 《색갈혁명》으로 튀니지와 리비아, 예집트 등 나라들에서 정부들이 전복되고 수리아와 예멘에서는 폭력적인 반정부운동이 계속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심화되는 사회적불안과 무질서속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피난민사태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그 여파가 아랍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주변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에서 교훈을 찾는것은 피난민위기와 같은 대참사의 확대를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색갈혁명》으로 빚어진 아랍세계의 참사가 남긴 교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아랍나라들에서 벌어진 《색갈혁명》의 시작과 과정,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색갈혁명》의 후과와 교훈을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 1.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의 시작과 과정

아랍세계에서의 《색갈혁명》은 2010년말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그 동기로 된것은 이 나라의 어느 한 소도시에서 발생한 한 청년의 분신자살사건이였다.

2010년 12월 17일 수도 튀니스에서 남쪽으로 약 260km 떨어진 중부튀니지의 자그마한 도시 시디부지드에서 한 청년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그마한 남새상점

을 경영하던 무함마드라는 29살 난 청년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여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았던 것이다. 이 분신자살장면을 편집한 동영상 이 인터넷에 오르자 수많은 튜니지청년들이 반정부폭동을 선동하는 기사들을 련이어 인터넷에 실었으며 이에 화답하여 곧 대중적인 반정부폭동이 터졌다.((에코노미스트》2016년 1월 9일 38페이지)

튜니지대통령 벤 알리가 군대에 폭동을 진압할것을 명령하였지만 오히려 군대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에게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날것을 《권고》하였다. 내외의 압력으로 2011년 1월 14일 23년간 집권하였던 벤 알리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튜니지에서 폭동과 그 결과에 대한 소식은 곧 인터넷을 비롯한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전체 아랍세계에 퍼져나갔으며 이로 인하여 아랍세계는 대동란에 빠져들었다. 튜니지에서 1월 14일 벤 알리정권이 붕괴된데 이어 1월 22일 예멘에서 살레흐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2월 11일에는 에집트의 무바라크정권도 무너졌다. 뒤이어 2월 15일 리비아의 제2수도인 비나가지에서 반정부시위가 개시된데 이어 3월 17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무력행사를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3월 19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나토무력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8월 23일에는 나토무력의 지원밑에 리비아의 반란군이 수도 타라불스를 점령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대통령 가다피가 반란군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한편 예멘에서는 6월 3일 대통령부에 대한 포사격으로 대통령이 부상을 당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예멘대통령 살레흐는 11월 23일 쿨한이양서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산케이신문》2011년 11월 25일)

수리아에서도 2011년 3월 데르아시에서 반정부시위가 일어난데 이어 정부군과 반정부세력사이의 끊임없는 류혈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이밖에도 알제리와 만지역의 순니파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서도 시아파에 의한 반정부시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아랍세계의 《색갈혁명》과정을 나라별로 종합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튜니지

2010년 12월 모함메드 보우아지지의 주도하에 폭동.

2011년 1월 대통령 벤 알리 망명, 립시정부 수립.

2011년 10월 첫 선거진행, 이슬람교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안나흐다당이 국회선거에서 최대의석을 차지.

에집트

2011년 1월 까히라에서 무바라크정권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남.

2011년 2월 무바라크대통령 퇴임.

2012년 6월 무슬림형제단계 대통령후보자 모하메드 무르씨가 대통령으로 선거.

리비아

2011년 2월 비나가지에서 가다피대통령을 반대하는 폭동이 시작.

2011년 3월 나토군이 리비아의 공군무력을 습격, 파괴.

2011년 8월 나토군이 수도 타라불스를 점령.

2011년 10월 대통령 가다피 사살.

2012년 7월 독립파세력이 국회선거에서 최대의석을 차지.

예멘

2011년 1월 대통령 알리 아브둘라흐 살레흐의 재선을 반대하여 반정부시위가 벌어짐.

2011년 3월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알 카에다조직이 알무하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

2011년 11월 살레흐 예멘을 떠나면서 자기의 권력을 대리인 아브둘라흐 만쭈르 알 하디에게 넘겨줌.

2012년 2월 대통령선거에서 하디가 대통령으로 당선.

수리아

2011년 3월 데르아시에서 반정부시위가 일어남.

2012년 5월 반란군이 두번째로 큰 도시인 할레브를 공격.

2012년 8월 할레브시 분리, 정부군이 반정부군에 대한 포격을 개시.

(《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이처럼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으로 짧은 기간에 튀니지와 예집트, 리비아와 예멘에서 장기집권하였던 정권들이 무너졌으며 수리아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2. 2.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

지금 서방의 신문, 방송들은 아랍세계의 대동란을 초래한 원인을 마치고 튀니지와 예집트, 리비아와 수리아 등 이 지역 나라들에 장기집권하였던 《비민주주의》적인 정권들의 부정부패에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 지역 나라들의 한심한 경제형편 특히 식량위기와 높은 청년실업률, 전통적인 종교적 및 종족적불화를 그 원인으로 평가하고있다. 이것은 인류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이 일어나게 된것은 결코 이 지역 나라들의 내부분제에만 기인된것이 아니다.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사전략적요충지이며 전략자원지대인 이 지역을 기어이 타고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간섭과 침략책동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아랍지역을 손에 넣기 위하여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침략수법들을 써왔으며 특히 랭전종식후 그러한 책동은 보다더 강화되었다.

랭전종식후 제국주의자들은 아랍나라들에 서방식민주주의를 이식하기 위하여 《바르셀로나과정》과 같은 침략계획들을 작성하여놓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서방나라들은 이 침략계획에 따라 아랍나라들에 《자유민주주의》를 널리 확대할수 있도록 명백한 국내정치개혁을 진행할것을 강요하였으며 그 대가로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것을 약속하였다. 뿐만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 북을 비롯한 정보기술공간들과 각종 출판선전물들을 통하여 썩어빠진 부르조아사상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렸으

며 현 정부관리들의 부정부패행위들을 과장하여 선전함으로써 해당 나라 인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높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은 이미전부터 이 지역 나라들에 존재하여 온 민족적, 종교적불화를 조장시키고 더욱 부추겨 복잡한 정세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놓고는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나중에는 《분쟁조정》, 《인권옹호》의 구실로 나토무력을 들이밀어 정권을 전복시키었다.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다음으로 이 지역 나라들이 자체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지 못한데 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후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대부분의 아랍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정치강령을 제시하고 실행해나가지 못하였다. 특히 뽕전종식후 변화된 국제정세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지 못하고 서방나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의 고유한 정치방식을 포기하였다. 결국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종교적, 민족적불화가 더욱 심화되어 나중에는 폭력적인 사태에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아랍나라들은 또한 국제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는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지 못하였다. 민족적독립을 달성한 후 아랍나라들은 자체의 민족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구호를 내놓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식민지시기의 편파적이며 불균형적인 경제체제를 완전히 마스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이전 종주국들의 경제에 의존하여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갔다. 특히 이 지역 나라들에서는 원유산업을 위주로 하는 편파적인 경제구조를 허물지 못하였으며 그나마도 원유가공과 판매는 대부분 서방의 기술과 기업들에 의존하여왔다. 그러다나니 농업은 여전히 부진상태에 있게 되고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낮은 국제경제질서에 목이 매여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약탈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국 세계적인 경제파동, 특히 식량위기가 초래되자 실업과 빈궁이 만연하게 되고 인민들의 반정부 감정이 더욱 높아져 폭력적인 사태에로까지 번져지게 되었던것이다.

아랍나라들은 또한 자위적방위력도 튼튼히 다지지 못하였다.

지정학적위치와 전략자원지대라는 조건으로 하여 아랍나라들은 그 어느 지역나라들보다도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나라들은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데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아랍나라들은 자체의 군수공업을 튼튼히 다질대신 풍부한 원유자원을 리용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다른 나라들의 무장장비들을 구입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군대를 무장시켰다. 결국 반정부세력의 무장공격과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물리치지 못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게 되었다.

2. 3.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의 후과

아랍지역을 휩쓴 《색갈혁명》은 이후 이 지역 나라들에 파국적후과를 가져다주었다.

아랍세계에서 《색갈혁명》은 우선 이 나라들의 정치정세를 완전한 혼란상태에로 몰아갔다.

튀니지에서 2011년 10월에 진행된 선거를 통하여 이슬람교원리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안나흐다당이 국회선거에서 최대의석을 차지하였지만 야당들과의 정권쟁탈전은 끊임

없이 벌어졌으며 2013년 2월에는 야당지도자였던 초크리 벨라이드가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로부터 초래된 정치적위기로 하여 안나흐다당은 국회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2014년 10월에 다시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온건파인 니다 토크스당이 승리하여 이 당의 지도자인 무함마드 알 바쥐 까이드 앓 썬씨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었지만 정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에집트에서도 무바라크정권이 무너진 후 선거를 통하여 무슬림형제단산하에 있는 자유공정당 당수 무르씨가 대통령으로 되었지만 2013년 7월 군사정변이 일어나 이 정권은 1년만에 무너지고말았으며 무슬림형제단의 활동도 금지당하였다. 그후 2014년 5월 군부출신의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음해 12월 국회선거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최대의석을 차지하였지만 여전히 정치정세는 불안정한 상태에 남아있었다.

《색갈혁명》후 가장 큰 정치적동란에 빠져든것은 리비아였다.

리비아에서는 과도정부가 내전의 종식을 선포하고 1년안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정권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부족, 교파 등 각이한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나라의 정치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2012년 7월에 선거가 실시되고 국민세력연합이 제1당으로 선출되었지만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에서부터 각이한 세력들사이에 파벌싸움이 일어나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수상이 빈번히 교체되는 등 정치적불안정이 지속되었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대통령까지 반정부세력에 의하여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들어와서부터 국내각지에서 이슬람교원리주의무장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트리폴리국제비행장과 석유시설들이 이들에게 장악되고 정부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6월 국회총선거가 진행되어 새로운 국회가 조직되었지만 반대파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4년 8월에는 무력으로 타라불스를 습격하였으며 새로 조직된 국회가 토브루크시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혼란된 정치정세를 리용하여 지하드와 이슬람교국가를 비롯한 이슬람교극단주의세력들이 더나시와 꾸르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저마끔 자기의 통치구역을 설정하고 통치기구들을 설치하였다.((《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예멘에서도 살레흐정권이 무너진 후 2012년 2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디의 정부는 2014년 8월 연료보조금문제로 일어난 반정부시위로 하여 사임하였으며 2014년 9월 반란군이 수도 사나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하디는 남부도시 아덴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에코노미스트》 2016년 1월 9일)

순니파인 하마드국왕이 정권을 잡고있는 바레인에서도 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정치적권리의 확대를 요구하여 2011년 2월 14일 시위를 벌렸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시위가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해 바레인정부는 이미 감금하였던 시아파정치인 23명을 석방하고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바레인국왕은 2월 26일 2명의 왕족출신의 각료들을 포함하여 4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등 완화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시위는 계속되었다.((《해외사정》 2011년 3월 1일)

쿠웨이트에서도 3월 8일 수상의 사임과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시위를 법적으로 전면금지하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3월 10일부터 전국도처에서 시위가 빈번히 일어났다.((《에코노미스트》 2011년 3월 29일)

이러한 반정부시위들은 모두 류혈을 동반한것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색갈혁명》이 일어난 초시기에만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예쉴트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2011년초 3주일간 지속된 시위과정에 적어도 846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리비아정부도 국내전쟁과정에 랑측의 사망자수가 도합 3만명이상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예멘정부도 살레흐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과정에 2 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하였다. 내전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수리아에서도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 3월말부터 6월사이에 약 9 000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이처럼 아랍세계에서의 《색갈혁명》은 이 지역 나라들의 정치정세를 파국적처지에 빠뜨렸다.

아랍세계에서 《색갈혁명》은 또한 이 나라들의 경제에도 파국적후과를 미쳤다.

아랍나라들가운데서 《색갈혁명》이 제일먼저 시작된 튀니지에서는 국가수입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관광수입이 2012년에 그 전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에코노미스트) 2012년 3월 6일)

예쉴트에서도 2010년에는 국내총생산액이 5.1% 장성하였지만 2011년에는 장성폭이 1.2%도 되나마나했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특히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전해에 비해 약 30% 줄어들었다. 한편 실업률도 2011년 11월까지 11.9%로서 지난 10년사이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다.((에코노미스트) 2012년 3월 6일) 2012년에 예쉴트의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량)의 전량에 해당하는 2 700억US\$로 늘어난데 비해 외화보유량은 150억US\$로 줄어들었다. 2013년 10월에는 이미 서방자본이 예쉴트에서 빠져나갔고 유럽과 미국은 원조를 중단했다. 59개의 최고급호텔들이 문을 닫았고 기차시의 피라미드에는 관광객을 거의 찾아볼수 없게 되었으며 룩소르시의 관광은 80%나 떨어졌다.((현대국제관계) 2014년 1월 1일 23페이지)

리비아에서는 2011년에 원유수출가치가 40% 떨어진것으로 하여 국내총생산액에서 60%이상의 손실을 입었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그후 이 나라에서 수출로 얻어지는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석유생산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생산량은 《색갈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에코노미스트) 2012년 3월 6일)

예멘도 커다란 경제적타격을 받았다. 《색갈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유엔은 2011년 예멘의 경제가 3.4% 장성할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의하면 2012년에 예멘의 국내총생산액은 0.5% 감소되었다. 또한 《색갈혁명》의 초시기에만도 50만명이상의 예멘인들이 집을 잃었고 약 100만명에 달하는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었으며 25만명이 굶어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의 55%가 빈궁선이하에서 생활하고 1 000만명이 식량난에 허덕이였다.(그중 500만명은 식량부족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뿐만아니라 청년들의 50%이상 직업은 가지고있지 못한 처지에 빠졌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수리아도 2011년 10월까지 국내총생산액에서 60억US\$의 손실을 입었다.((포린폴리씨) 2012년 6월 30일) 게다가 유럽과 미국, 튀르키예로부터 경제제재가 가해져 수도 디마스끄에서도 전기와 연료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에코노미스트) 2012년 3월 6일)

2013년 상반기까지 북아프리카 및 중근동나라들이 《색갈혁명》으로 인하여 입은 경

제적손실액은 550억US\$에 달하였으며 2013년 아랍나라들의 직접투자는 17%로 떨어졌다.((브라우다 위스포까) 2013년 6월 9일)

아랍세계에서 《색갈혁명》은 또한 대인권참사인 피난민위기를 발생시켰다.

2017년 6월현재 세계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자기 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넘어간 피난민의 수는 2 170만명, 고향에서 쫓겨나 살길을 찾아 국내의 여기저기로 방황하는 류량민수는 4 500만명에 달하였다.(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보고 2017년 6월 20일) 그가운데서 최근년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나라들에서 발생한 피난민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있어본적이 없는 최고수자를 기록하였다. 유럽 동맹국경선조절통제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2월 13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5 526명에 달하는 튜니지이주민들이 이딸리아의 암빠도우싸섬에 이주해 왔다. 3월말에 이르러 원주민이 4 500명밖에 안되는 이 섬에 이주해온 튜니지사람들은 1만 8 500명계선을 넘어섰다.((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유럽동맹정책의 발전추세) 현대국제관계 2011년 4월 1일) 그후에도 튜니지의 피난민수는 계속 늘어났다.

리비아에서도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여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국제피난민구제조직은 70만명의 리비아주민들이 국내전쟁기간에 주변나라들로 피난하였다고 발표하였다.((포린 폴리씨) 2012년 6월 30일)

가장 흑심한 피난민위기를 산생시킨 나라는 수리아이다. 2012년 5월 유엔은 분쟁기간 약 50만명의 수리아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버리고 떠나갔으며 15만명이상이 요르단과 레바논, 튀르키예 등 주변나라들로 피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리아의 피난민수는 더욱 늘어났다. 2016년 6월 20일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는 2015년말 현재 피난민이 제일 많은 나라 10개를 지적하였는데 그가운데서 수리아의 피난민수는 490만명으로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후에도 수리아의 피난민수는 계속 늘어나 2017년 6월에는 전란을 피해 다른 나라들에 피난간 이 나라 사람들의 수가 500만명에 이르렀다. 이밖에 미처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떠돌아다니는 류량민의 수는 무려 630만명에 달하였다.((2016년 강제이주에 관한 세계적경향)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보고 2017년 6월 20일) 이것은 인구가 2 369만 5 000명(2010년현재)인 이 나라에서 주민의 거의 절반이 피난민이거나 류량민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아랍세계에서 《색갈혁명》이 초래한 파국적후과는 비단 이 지역 나라들에만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였다.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에서 발생한 피난민은 주변나라들인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으로 밀려들었으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퍼져갔다.

어느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만도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온 피난민수는 100만 4 300여명으로서 그 전해의 4배나 된다고 한다.((로동신문) 주체 105(2016)년 2월 29일)

2015년과 2016년이후에도 유럽으로 향한 피난민들의 행렬은 끊기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낡은 배를 타고가다가 바다에 빠져죽는 비극적인 참사를 당하면서도 피난민들은 계속 유럽으로 밀려들어갔다. 2015년 유럽으로 가던 도중 3 675명의 피난민들이 지중해에 빠져죽었으며 2016년에는 그 수가 7 448명으로 늘어났다.((통계를 통해 본 세계피난민위기) 유럽안정제안 영문 2017년 1월 30일 15페이지)

밀려드는 피난민들은 유럽나라들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유럽나라들은 피난민들에게 어떻게 식량과 주택, 의료, 교육, 취업상방조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로 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실례로 2015년에 도이칠란드의 바이에른주정부는 메르켈수상에게 만일 연방정부가 피난민들이 도이칠란드로 대량적으로 밀려드는것을 계속 허용한다면 《재판소에서 만나게 될것》이라는 내용의 《최후통첩》까지 보냈다. 도이칠란드의 정보기관은 도이칠란드정내에 종교극단분자들이 급속히 증가되었는데 이슬람교국가를 비롯한 극단조직들이 피난민들속에서 무장인원들을 모집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신화) 2015년 10월 21일)

이밖에도 폴스카와 마자르를 비롯한 많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동맹의 피난민강제할당정책에 반대의견을 표명한것을 비롯하여 피난민문제는 유럽동맹의 정상적인 운영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심지어 피난민위기는 유럽동맹의 존재자체를 위협하였다. 피난민위기대응과 관련한 의견상이로 2016년에 영국이 동맹에서 탈퇴성명을 발표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2. 4. 《색갈혁명》이 남긴 교훈

《색갈혁명》으로 하여 파국적위기에 처한 아랍나라들의 현실은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교훈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면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사소한 환상과 기대도 가져서는 안되며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아랍나라들의 유일집권당체제에서는 마치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듯이 떠들어대면서 서방식정치방식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였으며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원조》를 미끼로 이 나라들을 회유하였다. 이러한 책동은 특히 랭전종식을 전후한 시기에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결국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어가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국제정세속에 친서방적인 나라들뿐아니라 알제리, 리비아와 같은 반서방감정이 비교적 강하다고 하던 아랍나라들도 서방식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은근한 환상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가지고 다당제를 받아들였다.

다당제는 정부조직에 참가할수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정당들이 여러개 존재하는 상태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부르조아정당체제의 하나이다. 다당제는 보통 어느 한 정당이 정권을 독차지하는것이 아니라 몇몇 정당들이 참가하는 연립정권을 형성한다. 따라서 다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는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 있을수 없다.

1981년에 집권한 무바라크가 다당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에집트가 아랍나라들에서 제일먼저 다당제를 받아들였으며 그에 이어 튀니지에서는 1988년에, 알제리에서는 1989년에 다당제를 도입하였다. 이밖에 마로끄와 수단, 모리타니를 비롯한 이 지역의 기타 나라들에서도 다당제를 받아들였다.

다당제가 도입됨으로 하여 에집트와 마로끄, 알제리, 튀니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벌써 랭전종식직후 야당세력들이 이슬람교운동세력과 야합하여 집권여당들에 대립하여나섬으로써 정치적불안이 계속되었으며 알제리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폭력적인

반정부시위가 벌어져 국회들이 해산되고 군부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사태들이 벌어졌다. 결국 다당제도입으로 인한 사회정치적불안정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 지역 나라들에 파국적후과를 가져다준 《색갈혁명》을 초래하게 되었던것이다.

교훈은 다음으로 사상과 리념,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아랍나라들은 오래동안 지속된 시아파와 순니파사이의 대립과 모순, 아랍세속민족주의와 이슬람원리주의사이의 대립과 모순이라는 첨예한 문제들을 안고있다.

시아파와 순니파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1 0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아랍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차별대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있다. 실제로 바레인에서는 정권을 쥐지 못한 주민의 70%에 달하는 시아파주민들이 순니파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우대에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표시하고있으며 순니파가 74%로서 다수이지만 인구의 10~15%밖에 안되는 시아파계의 알라위파가 정권을 잡고있는 수리아에서는 순니파주민들이 반정부활동의 주력을 이루고있다.(《내슈널 인터레스트》 2012년 5월 1일)

정권을 장악한 교파는 자파세력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파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 그들의 진출을 폭력으로 진압하고있다. 2012년 3월 14일 바레인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만합조리사회가맹국의 합동군인 《반도의 방패》군을 끌어들여 시아파교도들의 시위를 진압한것은 그 단편적인 실례이다.

세속민족주의세력과 이슬람원리주의세력사이의 대립과 모순도 아랍세계를 분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랍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세속민족주의세력은 원리주의세력의 진출을 각방으로 억제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이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수리아와 예멘에서의 국내전쟁을 들수 있다.

이처럼 뿌리깊은 종교적 및 민족적불화와 사상과 리념의 차이로 인한 반목과 질서는 아랍사회를 분열시키고 이 나라들에서 반정부세력을 사촉하여 보다 친서방적인 정권을 세우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되어 나중에는 《색갈혁명》이라는 파국적후과를 초래하게 되었던것이다.

교훈은 다음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청년들속에서 제국주의사상문화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이나 동경도 자라나지 않도록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오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서 주역을 놓고있다.

아랍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도 랭전종식후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유아랍방송》을 비롯한 방송선전수단과 출판선전물들 특히 트위터, 페이스 북을 비롯한 정보기술공간을 통하여 아랍나라들에 쏘아빠진 부르쵸아생활양식을 류포시키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러나 아랍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으며 청년들을 건전한 사상과 정신으로 교양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아랍인민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겪어보지 못한 아랍의 청년들속에서 서방세계에 대한 환상이 널리 조장, 류포되게 되었고 점차 전통적인 아랍식생활 방식을 싫어하고 서방식생활양식에 대한 동경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대중적인 반정부시위에 앞장서게 되었던것이다.

3. 결 론

이처럼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은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나라와 민족의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에 언제나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처해나가지 못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다.

우리는 아랍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이 남긴 교훈을 통하여 자주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이 땅우에 기어이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실마리어 《아랍의 봄》, 《색갈혁명》, 피난민문제